

2019 만화 기업 창업 지원사업 서면평가 종합심사평

2019 만화 기업 창업 지원사업은 만화·웹툰 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의 성공적 시장진입 및 만화·웹툰산업 생태계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가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 7인은 34개 신청서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초기 창업기업’ 과 ‘7년 이하의 기업’ 2개의 트랙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사업공고에서 안내된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과 참여인력의 역량, 사업비 구성, 과제기획력, 과제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심사결과 ‘1년 이하의 초기 창업기업’ Track1에 지원한 지원기업 10개, ‘7년 이하의 기업’ Track2에 지원한 24개 중 서면평가를 통과한 수는 Track1 6개, Track2 13개, 총 19개가 통과되었습니다.

평가위원 전원은 ‘콘텐츠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편성과 사업목적이 부합하는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고 했으며, ‘서면평가에 통과한 업체에 축하드리며, 참여기업에 감사를 드린다’ 고 밝혔습니다.